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Relatedn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¹⁾

Chung, Mi-Kyung²⁾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relatedn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o do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in 495 college students from seven university in Seoul and Gyonggi-Do.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the SPSS 19.0 and AMOS 19.0. Study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areer decision-relatedn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howed difference among grades. Second, career decision-relatedn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o one another.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direct and indirect effects from career decision-relatedness to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se results indicated the significant role of career decision-relatedness on college stud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Career decision-relatedness, career barrier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1)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research grant from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for an academic exchange program in 2017.

2) Corresponding Author: Chung, Mi-Kyung,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327 Jungang-Ro Anseong-Si Gyeonggi-Do, Korea, 17579 / E-mail: mkchung@hknu.ac.kr

대학생의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¹⁾

정미경²⁾ (한경대학교)

< 요약 >

이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학년에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지역 소재 4년제 대학 7곳에 재학 중인 495명의 남녀 대학생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에는 SPSS 19.0과 AMOS 19.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진로결정관계성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셋째,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장벽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진로결정관계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구조분석

1) 본 연구는 2017년도 한경대학교 교비(해외)파견 연구비의 지원에 의한 것임.

2) 교신저자: 정미경, (17579)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 E-mail: mkchung@hknu.ac.kr
논문투고: 2019. 2. 15 / 심사일자: 2019. 3. 1 / 게재확정일자: 2019. 3. 18

I. 서론

연일 ‘청년 실업률’ 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청년 실업률은 9.8%를 기록하며 지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분석에 의하면 25세~34세 실업자는 33만8천 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43만4천 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각 연도의 동일 시점을 비교하여 추이를 파악하는 고용동향에 따르면 25~34세의 경제활동 참여자의 규모 변화를 고려해도 실업은 기록적인 수준에 달했다(연합뉴스, 2018.8.22).

이처럼 낮은 취업률 속에서 대학 시절은 다른 시기보다 삶의 진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 동시에 학교교육을 마친 후 직업세계로 이행해야 할 단계이므로, 이 시기에 진로와 관련된 결정은 발달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상당 수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진로나 직업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공과 적성 간의 불일치, 불투명한 취업 전망, 그에 따른 진로 불안 등등의 이유로 전공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군 입대나 휴학 등을 수단으로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김선중, 2005). 현재의 청년 실업은 산업 구조와 경제 환경 변화라는 구조적인 측면을 띄고 있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인프라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발맞추려는 개인의 의지와 노력 또한 중요하다. 대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취업 장면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전략을 세우는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이야말로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것이다(이예진, 이기학, 2010).

진로준비 관련 행위를 나타내는 진로준비행동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으로 각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결정된 목표 달성을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김봉환, 1997). 진로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가 성숙되어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르는 진로준비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진로목표달성이 어렵다(고태용, 2008).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시험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업준비(행동적 영역)는 의사결정(인지적 영역) 이상으로 중요한 요소이다(김계현, 2000). 실제로 진로준비행동이 취업 가능성과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lustein & Flum, 1999; Kanfer et al., 2001). 이처럼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로탐색행동인 진로준비행동은 그 어느 시기보다 중요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이 낮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소연, 이숙정, 2013; 손은령, 손진희, 2005; 송현심, 홍혜영, 2010; 양진희, 김봉환, 2008). 이에 따라 최근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거나 이를 높여 줄 수 있는 변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중요하고 필요하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이라 할 수 있는 진로결정관계성(career decision relatedness)은 진로결정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관계적 지지를 받고 다른 사람과 유대관계를 느끼는 것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지나 조언을 받는 활동들을 할 때 관계성에 관한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김은영, 2007). 개인이 외부로부터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적극적인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Blustein(1997)은 인생 전체에서 일과 관련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때 개인적 지지의 중요성을 논의하며 사회적 지지가 높은 대학생은 더욱 세밀한 진로탐색행동을 하며 진로선택을 잘 준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송현심과 홍혜영(2010)은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사회적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즉, 자신이 필요로 할 때 타인이 지지를 제공해주리라는 믿음이 있다고 지각하며, 자율적 진로준비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이에 김은영(2007)은 진로결정관계성의 하위요인으로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의 네 개 하위요인을 설정하고 지지는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이해받는 느낌, 모델링은 진로결정의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 활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것, 조언은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조언을 제공받는 정도라고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박소연과 이숙정(2013)의 연구에 의하면 여대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진로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의 지지나 조언을 받거나 모델링할 대상이 있을 경우 진로준비행동의 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도록 이끄는 심리적 구인으로서 진로결정관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란 진로 관련 경험들을 수행해 가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선택, 목표, 포부, 동기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역할행동을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 사건이나 사태라고 통칭할 수 있다(고태용, 2008). Swanson과 Tokar(1991)가 개발한 진로장벽검사(CBI: Career Barriers Inventory)와 관련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진로장벽의 개념화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진로장벽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진로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하였다(Swanson & Tokar, 1991). Swanson과 Woitke(1997)는 진로장벽이란 개인 내부나 환경 속에서 진로선택이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조건으로 정의함으로써 내적장벽과 외

적장벽을 정의의 내용에 포함했다. 그러나 진로장벽을 내적, 외적장애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구분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진로장벽의 요인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손은령(2001)은 진로장벽이란 진로를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목표 실천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 요인들을 의미하고, 내적장벽은 자신감의 부족, 낮은 동기와 같은 심리적 측면을 말하며, 외적장벽은 주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진로장벽에 대한 이상의 정의나 분류방식에 따라 제시된 진로장벽 요인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진로목표 달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실이나 상황을 개인이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탁진국과 이기학(2001)은 대학생의 진로장벽검사 개발에서 다원분류체계에 따라 내적 장애에는 직업정보 부족,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 부족과 외적 장애를 제시하였다.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김선중, 2004; 유수복, 2013; 이명숙, 2002; Hirschi, 2011; Swanson & Tokar, 1991). 또한 진로장벽을 극복진로장벽과 좌절진로장벽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극복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좌절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직접적인 부적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고태용(2008)은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장벽의 영향력은 개인의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지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는 가변적 요소라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연구 경향을 종합하면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고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학년 변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손은령, 손진희(2005)는 진로준비행동과 개인적 변인 및 맥락적 변인간의 관계 연구에서 맥락적 변인인 진로장벽 변인보다 성, 학년, 내외통제성과 같은 개인적 변인이 진로준비행동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중 학년과 진로준비행동의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년 변인과 같은 개인적 변인들은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변인이며, 학년이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송현심, 홍혜영(2010)도 4학년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있어서 학년 변인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학년과 진로준비행동이 상관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진로준비가 저학년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고학년이 되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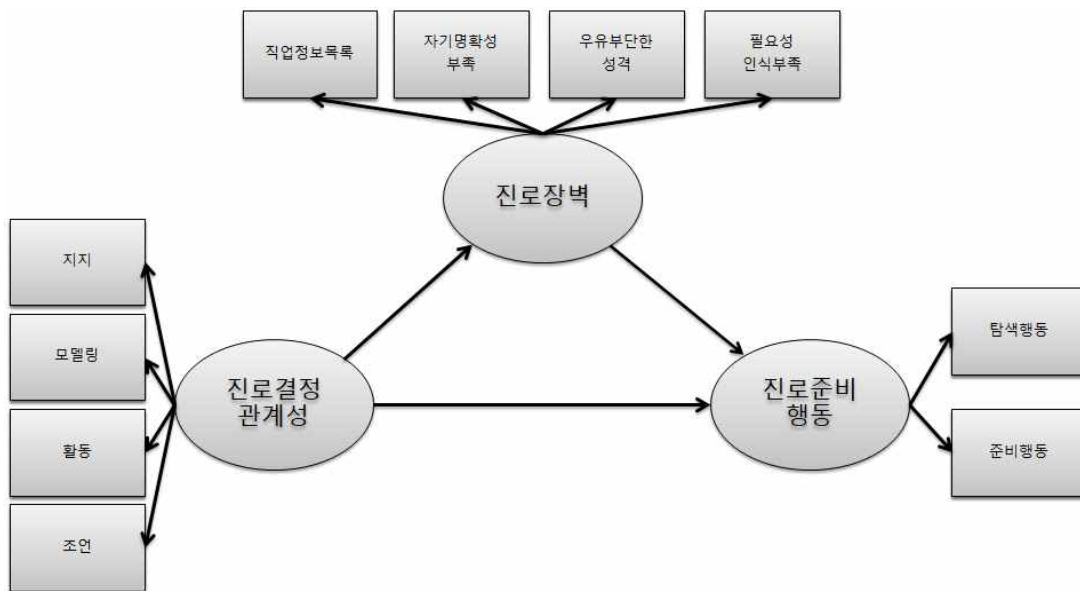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관계성을 설정해서 다음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특성으로 학년 변인을 들 수 있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학년에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준비행동은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준비행동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림 1]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간의 가설적 구조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 소재 4년제 대학 7곳에 재학 중인 학생 495명을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의 방법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연구대상자는 463명(남자 203명, 여자 260명)이었다. 이들의 학년별 분포는 1학년 165명, 2학년 106명, 3학년 110명, 4학년 82명이었다. 전공계열을 살펴보면 공학계열이 152명(3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문계열이 98명(22.4%), 상경계열이 96명(21.9%), 교육 및 사회복지계열이 58명(13.2%), 마지막으로 예체능계열이 34명(7.8%)으로 다양한 전공분포를 보였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의 일반적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배경변인 분포

성별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체(%)
	남자		89(19.2)	40(8.6)	34(7.3)	40(8.6)
여자		76(16.4)	66(14.3)	76(16.4)	42(9.1)	260(56.2)
전체		165(35.6)	106(22.9)	110(23.8)	82(17.7)	463(100.0)

2. 측정도구

가. 진로결정관계성

진로결정관계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김은영(2007)이 개발한 진로결정관계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으로 지지(6문항), 모델링(5문항), 활동(6문항), 조언(5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관계성의 하위요인이 높은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은영(2007)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지지 .83, 모델링 .82, 활동 .88, 조언 .81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계수는 지지 .86, 모델링 .85, 활동 .88, 조언 .83으로 신뢰로운 척도임을 알 수 있다.

나. 진로장벽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탁진국과 이기학(2001)이 개발한 대학생의 진로장벽 검사를 고태용(2008)이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18문항으로 직업정보 부족(6문

항), 자기명확성 부족(4문항), 우유부단한 성격(4문항), 필요성 인식 부족(4문항)의 4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고태용(2008)의 연구에서 Cronbach α 계수는 직업정보 부족 .87, 자기명확성 부족 .87, 우유부단한 성격 .80, 필요성 인식부족 .89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진로장벽의 하위 척도별 Cronbach α 계수는 직업정보 부족 .86, 자기명확성 부족 .91, 우유부단한 성격 .81, 필요성 인식부족 .84로 신뢰로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을 위해 김봉환(1997)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검사에 김형균(2002)이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한 인터넷 진로 정보사이트 및 진로상담센터 등의 활용에 관한 2문항을 추가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김봉환(1997)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세 가지 차원을 측정하는 16문항을 개발하였다. 김형균(2002)이 추가한 2문항은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보았다”와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있다”이다. 각 문항은 4점 척도이며, 진로준비행동을 하나의 단일 요인으로 보지 않고 탐색행동과 준비행동의 하위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형균(2002)의 연구에서 Cronbach α 는 단일요인 .88로 나타났으며, 이 연구에서는 탐색행동 .85, 준비행동 .83으로 신뢰로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ver 19.0)와 AMOS(ver 19.0)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절차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첫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의 신뢰도 분석을 위해 문항내적일치도(Cronbach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년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변량분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넷째, AMOS 19.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검증하였다. 각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차이검증과 함께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NFI(Normed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살펴보았다. CFI, TLI, NFI 지수는 일반적으로 .9이

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간주되고(Kline,1998), RMSEA 지수는 .10이하이면 양호하며 .05이하이면 매우 적합하다(Steiger, 1990). 다섯째, 최종모형을 확정된 후 각 변수들 간에 존재하는 경로의 의의도와 설명력을 검증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와 총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모수의 분포를 알지 못할 때 모수의 경험적 분포를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구조모형의 모든 모수추정치들의 표본분포를 추정하여 근사적인 표준오차 및 신뢰구간, 유의확률을 구하는 유용한 방법이다(김계수, 2007).

Ⅲ. 연구결과

1. 학년에 따른 주요 변인 차이 분석

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이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한 결과와 사후검증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학년에 따른 주요변인 차이분석

		제공합	자유도	평균 제공	F	p	Scheffe 검정
진로결정 관계성	학년	8.39	3	2.79	3.80*	.010	
	오차	337.66	459	.73			
	합계	346.06	462				
진로장벽	학년	9.89	3	3.29	7.41*	.000	1, 2 < 4
	오차	204.17	459	.44			
	합계	214.06	462				
진로준비행동	학년	16.01	3	5.33	19.31*	.000	1, 2 < 3, 4
	오차	126.79	459	.27			
	합계	142.80	462				

* $p < .05$

분석결과,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관계성($F=3.80$, $p < .05$), 진로장벽($F=7.41$, $p < .001$), 그리고 진로준비행동($F=19.31$,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차이에 대한 사후분석으로 Scheffe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진로장벽에서 1학년과 2학년 보다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서 1, 2학년보다 3, 4학년 학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주요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분석

이 연구에서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자료의 정상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인들의 상관계수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	직업정보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자기명확성부족	필요성인식부족	탐색	준비	
	지지	1									
진로결정관계성	모델링	.559**	1								
	활동	.505**	.646**	1							
	조언	.610**	.674**	.693**	1						
진로장벽	직업정보부족	-.385**	-.348**	-.260**	-.406**	1					
	자기명확성부족	-.454**	-.329**	-.249**	-.366**	.514**	1				
	우유부단한 성격	-.338**	-.311**	-.223**	-.284**	.452**	.586**	1			
	필요성인식부족	-.306**	-.193**	-.094**	-.144**	.332**	.271**	.312**	1		
진로준비행동	탐색	.291**	.351**	.416**	.394**	-.198**	-.249**	-.315**	-.260**	1	
	준비	.300**	.296**	.356**	.302**	-.281**	-.266**	-.301**	-.243**	-.681**	1
	평균	4.36	3.68	3.26	3.54	2.87	2.60	2.85	1.97	2.28	2.13
	표준편차	.93	1.09	1.06	1.01	.83	1.04	.90	.83	.53	.67
	왜도	-.55	-.10	-.03	-.12	-.05	.32	-.03	.74	-.07	.21
	첨도	.23	-.43	-.32	-.17	-.37	-.60	-.38	.10	-.06	-.24

** $p < .01$

변인의 정규분포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와 첨도가 모두 1미만으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다. 변인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위해 변량증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살펴보았다. VIF가 10 이상이면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들의 VIF가 1.311에서 2.720 사이의 값을 보여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구조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 사이의 Pearson 상관분석 결과,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장벽

의 하위요인들이 $r=-.454\sim-.144$ 로 $p<.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주고 있고, 진로 결정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은 $r=.291\sim.416$ 로 $p<.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자료가 분석에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3. 구조모형의 적합도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간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일치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경로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인들의 이론적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할 때는 측정모형 검증과 구조모형의 검증으로 나누어서 살펴본다. 따라서 첫 번째 단계로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되는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χ^2 , TLI, CFI, NFI, RMSEA를 적합도 지수로 선정하였다. 측정변인들 모두 정규분포 가정을 만족하였으므로 이후 구조모형 검증에서도 모수 추정을 위해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118.268(df=29, p<.001)$, CFI=.954, TLI=.928, NFI=.940, RMSEA=.081로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이 유의한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의 t값과 같은 임계치(critical ratio: C. R.)는 ± 1.96 이상이면 $p<.05$ 수준에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는데, <표 4>를 보면 각 측정변인들의 임계치가 전부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잠재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4>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변수	<i>B</i>	β	<i>SE</i>	<i>C.R.</i>	<i>p</i>	
진로결정 관계성	지지	1.000	.725			
	모델링	1.282	.791	.083	15.446	.000
	활동	1.106	.702	.086	12.793	.000
	조언	1.261	.838	.079	15.902	.000
진로장벽	직업정보부족	1.000	.724			
	우유부단한성격	.918	.618	.093	9.884	.000
	자기명확성부족	1.226	.714	.111	11.081	.000
	필요성인식부족	.642	.461	.076	8.478	.000
진로준비 행동	탐색	1.000	.839			
	준비	1.233	.806	.107	11.544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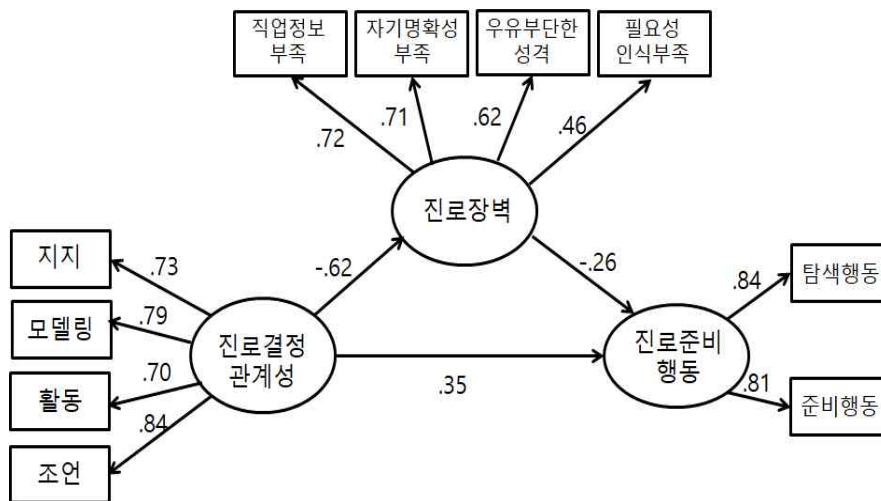
다음으로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여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적 관계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가설적 구조모형 적합도

모형	χ^2 (df)	TLI	CFI	NFI	RMSEA
연구모형	118.268(29)	.928	.954	.940	.081
수용기준	p>.05	.9이상	.9이상	.9이상	.1이하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chi^2 = 118.268(df=29, p<.001)$, TLI=.928, CFI=.954, NFI=.940, RMSEA=.081로 적합도 지수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LI, CFI, NFI의 지수는 .9 이상일 때 좋은 모형이라는 수용기준에 따라 적합하며, RMSEA는 .1 이하일 때 좋은 모형이라는 수용기준에 따라 이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구조모형은 적합모형임이 검증되었다.

연구모형에 따라서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최종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고,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과 같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장벽에 -.62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26의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에 .35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2]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간의 최종모형

<표 6> 최종모형의 모수추정치

변인	B	β	S.E.	C.R.	p
진로결정관계성→진로장벽	-.552	-.618	.059	-9.436	.000
진로장벽→진로준비행동	-.192	-.261	.057	-3.377	.000
진로결정관계성→진로준비행동	.233	.354	.049	4.756	.000
진로결정관계성→지지	1.000	.725	-	-	-
진로결정관계성→모델링	1.282	.791	.083	15.446	.000
진로결정관계성→활동	1.106	.702	.086	12.793	.000
진로결정관계성→조언	1.261	.838	.079	15.902	.000
진로장벽→직업정보부족	1.000	.724	-	-	-
진로장벽→자기명확성부족	1.226	.714	.111	11.081	.000
진로장벽→우유부단한성격	.918	.618	.093	9.884	.000
진로장벽→필요성인식부족	.642	.461	.076	8.478	.000
진로준비행동→탐색	1.000	.839	-	-	-
진로준비행동→준비	1.233	.806	.107	11.544	.000

모형 내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 및 직간접 효과를 살펴보면,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618$, $\beta = .354$,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관계성이 하위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은 조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beta = .838$), 다음으로 모델링, 지지,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장벽은 직업정보부족($\beta = .724$)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자기명확성 부족, 우유부단한 성격, 필요성 인식부족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전체효과는 <표 7>과 같다.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미치는 효과($\beta = .233$)가 있지만, 진로장벽을 경유하면 긍정적 영향의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339$). 이는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주지만, 지각된 진로장벽수준을 낮춘다면 진로준비행동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7> 최종모형의 직·간접효과 및 전체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진로결정관계성→진로장벽	-.552(-.618)***	-	-.552(-.618)***
진로장벽→진로준비행동	-.192(-.261)***	-	-.192(-.261)***
진로결정관계성→진로준비행동	.233(.354)***	.106(.161)***	.339(.515)***

*** $p < .001$

주: 괄호부분은 표준화계수임.

최종모형 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장벽 변인의 표준화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홍세희, 2009). 부트스트랩 방법을 적용하여 매개효과(간접효과)에 대한 분포를 형성하고, 매개효과에 대한 영가설 검증을 95%의 신뢰구간에 의해 검증한 결과 95%의 신뢰구간 범위가 .021에서 .309이므로 0을 포함하지 않아 $p < .001$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학년에 따라서 진로준비행동이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및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대학생의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하위요인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관계성($F=3.80, p<.05$), 진로장벽($F=7.41, p<.001$), 진로준비행동($F=19.31, p<.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의 사후비교분석 결과, 진로결정관계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진로장벽에서 1학년과 2학년보다 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진로준비행동에서 1, 2학년보다 3, 4학년 학생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는 학년 변인과 같은 개인적 변인들은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변인이며, 학년이 진로준비행동을 설명해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임을 강조한 손은령, 손진희(2005), 송현심, 홍혜영(2010)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장벽을 크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준비하는 것은 고학년이 되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진로장벽, 진로준비행동에 있어 학년 변인은 중요한 변인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상관분석 결과,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장벽의 하위요인들이 $r=-.454\sim-.144$ 로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주고 있고($p<.01$), 진로결정관계성과 진로준비행동은 $r=.291\sim.416$ 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진로준비행동을 함에 있어서 외부로부터 이러한 진로관련 관계성을 느끼도록 하는 지지, 모델링, 활동, 조언의 사회적 활동이 진로장벽을 감소시켜 주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진로장벽을 줄이고, 실제적인 진로준비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심리적 구인으로서 진로결정관계성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회인지진로이론을 기반으로 연구한 Lent 등(2000)이 진로 행동에서 맥락적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셋째, 가설적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잠재변인간의 표준화 계수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장벽에 $-.62$ 의 직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26$ 의 영향을 미치며 진로결정관계성은 진로준비행동에 $.35$ 의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을수록 진로장벽을 낮게 지각하고,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관계성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 결과(박소연, 이숙정, 2013; 송현심, 홍혜영, 2010)와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는 학생은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김선중, 2004; 유수복, 2013; 이명숙, 2002; Hirschi, 2011; Swanson & Tokar, 1991).

이 연구의 의의는 진로준비행동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작용하는 진로결정관계성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취업에 전제가 되는 진로준비행동을 방해하는 개인의 내적 요인 중 하나인 진로장벽들에 대해서는 진로결정관계성의 향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중요한 이론적 의미가 있다. 따라서 학년에 따라 진로준비행동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관계성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이 편의표집의 방법으로 서울, 경기 지역 소재 4년제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체 대학생으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지역, 학교 유형, 학과 등을 고려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진로결정관계성, 진로장벽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들 변인 이외에 다양한 진로관련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진로준비행동을 유형화하여 이들 유형별로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하여 대학에서 각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지원할 필요가 절실하다.

참고문헌

- 고태용(2008).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장벽이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 김계수(2007). *New Aos 16.0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서울: 한나래.
- 김계현(2000).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봉환(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선중(2005). *진로장벽, 희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은영(2007). *대학생의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형균(2002). *대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의 성별, 학년별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박소연, 이숙정(2013). 여대생의 진로결정자율성과 진로결정관계성이 진로결정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7(2), 611-628.
- 손은령(2001). 진로장벽연구의 동향과 후속 연구과제. *학생생활연구*, 28, 81-97.
- 손은령, 손진희(2005). 한국 대학생의 진로결정 및 준비행동: 사회 인지적 진로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399-417.
- 송현심, 홍혜영(2010). 사회적지지, 진로결정 자율성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 연구*, 11(3), 1325-1350.
- 양진희, 김봉환(2008). 여대생의 심리적 독립,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1(2), 57-71.
- 유수복(2013). *대학생의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가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 이명숙(2002). *대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애지각,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이연섭(2015.12.13.). 온라인을 통해 본 2015년 대한민국은 ‘협오사회’였다. *경기일보*.
- 이예진, 이기학(2010). 진로동기수준에 따른 군집 유형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직업교육연구*, 29(2), 267-287.
- 탁진국, 이기학(2001). 직업결정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디지털 경영연구*, 1(1), 167-180.
- 홍세희(2009). *Amos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고급*. 서울: 고려대학교.

- Blustein, D. L. (1997). A context-rich perspective of career exploration across the life rol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 260-274.
- Blustein, D. L., & Flum, H. (1999).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of interests and exploration in career development. In M. L. Savickas & A. R. Spokane (Eds.), *Vocational interests: Meaning, measurement, and counseling use* (pp. 345-368). Palo Alto, CA: Davies-Black.
- Hirschi, A. (2011). Career-choice readiness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trajectori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9(2), 340-348.
- Kanfer, R., Wanberg, C. R., & Kantrowitz, T. M.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5), 837-855.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Guilford.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Steiger, J. H. (1990).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2), 173-180.
- Swanson, J. L., & Tokar, D. M. (199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barriers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8, 92-106.
- Swanson, J. L., & Woitke, M. B. (1997). Theory into practice career assessment for women: Assessment and interventions regarding perceived career barrier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5, 443-462.

